

트렌드 & 스타일

운동장·산에도

“신경써라, ‘보는 눈’ 많다”

고기능에 패선까지...생활체육 ‘덕서리’ 열풍

요즘 스포츠 동호인들에게 ‘폼 나고 스타일 좋은 것’이 관심사 중 하나다. 과거처럼 집에서 입던 잠옷 겹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서는 이는 드물다. 실력은 동호인이지만, 장비만큼은 프로 스포츠맨 못지 않다.
월빙비를 타고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고기능성을 갖춘 ‘범품장비’ 구입 열풍이 불고 있다.
20만원대 고급 배드민턴 라켓이 인기고, 등산복 폼세트로도 100만~200만원대 제품이 불타나게 팔린다. 30만~40만원대 트레이닝복에 2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러닝화도 신고 집 주변을 뛰는 덕서리 조깅족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MP3가 내장된 30만~40만원대의 선글라스도 조깅족의 패션 아이콘 중 하나.
최근 또 등산복 업체가 내놓은 광고도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등산복으로 한껏 멋을 낸 미니모델이 암벽등반에 나선다.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신경써라, 산에도 시선이 많다’는 CF 광고가 나온다.



김근형 매니저 ‘고가 등산용품 관리 이렇게’

‘고어텍스’ 드라이클리닝 금물 등산화, 통풍 좋은 그늘서 말려야

산에 오르기엔 최적의 등산철을 맞아 등산 전문매장인 ‘노스페이스’ 김근형 매니저의 도움으로 고가 등산장비 관리법을 살펴봤다. 우선 등산의류에 ‘고어텍스’란 표시가 돼 있다면 드라이클리닝은 절대 금물이다. 드라이클리닝을 하게 되면 특수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옷이 뒤틀리고 지고 질감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손세탁이 필수다. 또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말려야 한다. 세탁이 어렵다면 바깥에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걸어두면 된다.
등산화는 산행 후 바닥과 곁에 묻은 흙을 잘 털어내고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묻혀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 등산화는 물에 넣어 빨면 소재로 사용된 가죽이 손상되거나 형태가 뒤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산화가 물에 젖었을 경우에는 바깥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손잡이 끝나면 등산화 안에 신문지를 구겨 넣어 신발장에 보관해야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모자 4만원

MP3 선글라스 44만8천원

점퍼 21만9천원

셔츠 6만4천원

바지 10만9천원

신발 19만9천원

합계 106만8천원

■스틸 걸치고 산에 오른다
한때 ‘서민 레포츠’라는 소리를 들었던 등산용품 시장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급화다.
광주롯데백화점내 등산복 전문매장인 ‘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올 가을 최고 인기 상품은 고어텍스 프로셸(GORE-TEX-PROSHELL) 섬유로 만든 등산복.
고어텍스는 완벽한 방수성과 통기성을 자랑하는 특수 섬유소재로 고가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째 유행이다.
올해엔 이러한 고어텍스보다 기능성이 25% 정도 뛰어나고 값도 20% 이상 더 비싼 고어텍스 프로셸 제품이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디자인이나 색깔도 탁월해 멋을 내고 싶은 등산 마니아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고기능성 등산용품으로 폼세트를 구입하려면 등산화(20만원대), 바지(20만원대), 상의(10만원대), 점퍼(40만~70만원대), 등산용 스틱(10만원대), 배낭(20만원대) 등으로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김근형(33) 광주롯데백화점 노스페이스 매니저는 “올 가을에는 고기능성에 패선까지 겸비한 고가의 제품을 찾는 마니아 계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패션을 입고 달려야 제맛
러닝화와 트레이닝복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던 조깅도 덕서리 열풍의 중심에 서 있다.
스포츠 용품 전문매장인 나이키의 김근중 매니저는 “과거엔 기능성 위주였지만, 요즘은 패션을 겸비한 외출복의 성격을 갖춘 고급 트레이닝복이 인기”라고 말했다.

폼생폼사



축구 마니아들에게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20만원대 축구화. 웨인루니와 이문재 등이 신어 화제가 됐다. 배드민턴라켓도 최첨단 소재를 사용한 20만~30만원대의 고가상품이 큰 인기다.

통 5만원대 라켓으로 시작하지만, 3개월 이상이지만 셔플룩을 때리는 ‘손맛’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찾는 이는 늘고 있다.
20만원대의 고가제품은 일반 티탄 제품에 비해 강도와 복원력이 뛰어난 알루미늄 소재인 ‘울티넵 티탄’ 소재 등으로 만들어 무게가 가볍고 반발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박진표기자 lucky@
/사진=나명주기자 mjna@

모자 4만원

T셔츠 18만원

배낭 9만원

장갑 5만5천원

점퍼 43만원

스틱 6만5천원

바지 22만원

양말 1만5천원

등산화 19만원

합계 128만5천원

“명품보다 공합 맞는 장비 골라야”

충장로 1가에서 체육용품점을 20년째 운영중인 유혜경(여·47) 한 국스포츠 사장은 “요즘엔 실용성보다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추세”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그러나 “운동 장비의 경우 비싼 장비보다는 자신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맹목적인 고가장비 구입을 경계했다. 그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권해도 ‘클럽에 나가면 모두들 이걸로 하는데~’라며 특정 고가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며 “가격보다는 성능이나 연령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구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체육학부 김응식 교수는 이같은 고가품 선호 현상에 대해 “유행과 멋을 추구하는 신세대들의 생활체육 합류와 우리나라 체육 동호인들의 기량향상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체육기량이 일정수준에 오르게 되면 나만의 특별한 제품을 사용하고 싶고, 차별화된 고가 장비를 찾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운동 초보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선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자신과 공합에 맞는 좋은장비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LCE타워(주) 첩단지구 LCE타워, 일가공인중개사, 대인동삼일부동산, 국민공인중개사, and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